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4. 13.(목) 11:00 < 4.14.(금) 조간 > 배포 2023. 4. 13.(목)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구축을 위한 첫걸음 내딛다

- '한국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구축 방안을 산학연 전문가와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월 13일(목) 14시 판교 반도체산업협회에서 '한국 첨단반도체 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 구축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반도체 첨단공정, 소부장 기술개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기술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소자기업, 원익 IPS, 동진쎄미켐, 하나마이크론 등 국내 소부장 기업과 (美) 램리서치, AMAT, (和) ASML, (日) TEL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 및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술센터에 첨단반도체 공정 인프라를 집적하여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반도체 중장기 제품·기술 로드맵 구축, IMEC 수준의 소자 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공정·제품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지원,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술센터 구축 방안과 첨단반도체 기술 개발과 소부장 기업의 제품 평가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기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참여 수익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술센터가 세계 반도체 첨단기술개발의 허브로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한국 첨단반도체 기술센터가 세계적인 반도체 첨단기술개발 센터이자 반도체 기술·인프라·인력 교류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내 첨단반도체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한국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추진 행사 개요

담당 부서	첨단정책국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서기관	김건혁 (044-203-4274)
			사무관	라정인 (044-203-427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한국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추진 행사 개요**

□ 개요

○ (일시) '23.4.13(목) 14:00~15:30

○ (장소) 반도체산업협회 9층

○ (참석자)

- **(정 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주재), 반도체과장
- **(산업계)** 국내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동진쎄미켐, 하나마이크론 등
  해외(美) 램리서치, AMAT, (和) ASML, (日) TEL
- **(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소(KETI),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 **(학회/대학)** 반도체공학회, 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 마이크로패키징학회, 주요 대학 등
- **(협단체/전담기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진행 순서(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5)	모두 발언	실장
14:05~15:25 ('80)	한국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논의	참석자
15:25~15:30 ('5)	마무리 발언 및 폐회	실장